

## 여대생의 체형과 MBTI 성격유형에 관한 연구

김진아\* · 이정란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박사수료\*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A study for female college students of somatotype and MBTI personality type

Kim, Jin-Ah\* · Lee, Jeong-Ran

Dr.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using personal measurement for female college students who have a great interest in fashion at 20-24 age, and examined somatotype character. As a means of a character type test, the grades were laid by using MBTI which proved to be objective, and relativity between character types was laid by conducting correlation analysis. The conclusions which can be drawn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ed.

1. In 4 preference index, which was classified by MBTI, Sensing(S) type was the highest of 17.27% at the average and 68.5% at the distribution rate each. The average of Extraversion(E) type was 14.56% and it's distribution rate was 64.5%. Index of types were : Intuition(N) 12.49%, Introversion(I) 11.75%, Perceiving(P) 12.50%. Average distribution rate of each types were : N 31.5%, I 35.5%, P 40.3%. And average of Sensing(S) type was the lowest, 11.09%. Like American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showed higher in the E type than in the I type. The distribution rate of 16 character types of MBTI were : ESTJ 18.5%, ESFP 13.7%, ISTJ and ESFJ 9.7%. But INTP and INFP were low, 2.4% and 0.8%.

2. Average sizes of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 height 160.49cm, weight 51.83kg, bust 83.22cm, waist 65.49cm, hips 90.70cm.

As compared with measurement of women at 20-24 age of Size Korea(2004), the subjects of this study showed less, about 0.2-5cm in height, 0.2-2cm in circumference except in waist, and 0.5-3.6cm in length.

---

Corresponding author; Kim, Jin-Ah, Tel.+82-51-510-3605  
E-mail: jinakim617@daum.net

3. After examining the relativity between personal measurement categories of the subjects and character type through the MBTI, Extraversion(E) type showed inverse correlation in stature, height, biacromial breadth, and subcutaneous fat thickness of posterior iliospinale. Contrary to the E type, the Introversion(I) type showed positive correlation. Sensing(S) type showed inverse correlation only in biacromial breadth, Intuition(N) type showed positive correlation in most categories including height, width and the subcutaneous fat thickness. Thinking(T) type showed positive correlation in bust point-bust point, chest depth and hip width. Feeling(F) type, on the other hand, showed inverse correlation. The Judging(J) type showed inverse correlation in stature, height, length and the parts of chest. In contrast, Perceiving(P) type showed positive correlation in other categories including biacromial breadth, same as the J type.

**Key Words** : Somatotype(체형), MBTI(성격유형검사도구), Character types(성격), Extraversion(외향성), Introversion(내향성)

## 1. 서론

다른 형태를 가지는 수많은 인체를 서로 유사한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노력은 일찍이 고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계속 되어왔다<sup>1)</sup>. 고대에는 신에게 희생제물을 바칠 때의 선별기준이나 전쟁 전에 승패를 점치기 위해 체형을 분류하였으며<sup>2)</sup>, 근세에 들어와서의 체형분류는 성격학이나 체질의학 등의 분야에서 체형과 성격, 체형과 체질 사이의 일정한 관계를 판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sup>3)</sup>.

체형에 관련된 성격의 유형분류에는 기원전 4세기 Hippocrates의 4가지(다혈질, 임파질, 담즙질, 신경질)체액론, Kretchmer의 3가지기질유형론이 있다<sup>4)</sup>. Kretchmer는 작고 뚱뚱한 사람은 사교적이고 낙천적이며 친절하고 안정된 기질의 소유자라고 하였고, 크고 마른 사람은 절제하고 자 의식적이며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골격이 크고 근육이 발달한 사람은 활달하고 신체적 활동이 많고 과격하며 허풍이 심하다고 하였다. 그 후 1942년 Sheldon은 체격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약 4천명의 남자 대학생의 표준사진을 찍어 세밀히 검토한 결과 3가지유형론으로 분류하였다. 내배엽형(Endomorph)은 비만형으로 근육의 발달은 좋지 않고 피하지방이 침착되기 쉬운 경향이 있으며, 특히 복부에 지방이 모여 있고 대체로 부드럽고 둥근 체형이며 항상 여유 있고 편

안한 것을 즐기는 성격으로 먹기를 즐기고, 우호적이며 관대하고 참을성이 많다고 하였다. 중배엽형(Mesomorph)은 골격과 근육이 잘 발달된 상반신이 하반신을 압도하는 체형으로 체격은 단단하며 직각을 이루고 모험적이고 용기가 있고, 운동을 즐기고 매사에 직접적이다. 외배엽형(Ectomorph)은 가슴이 판판하고 몸통이 가늘고 길며 직선적이고 허약하고 골반이 체간보다 더 크고 신경질적이며 마음가짐이 좁고, 동작이 작으며, 조심성이 많고, 내향적이며, 감정 자제를 잘한다고 성격과 체격유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sup>5)</sup>.

성격에 대한 연구도 유형연구에서 시작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개인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표준화된 성격유형검사도구(MBTI-Mayer Briggs Type Indicator)가 개인의 성격유형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지표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sup>6)</sup>. 최근 의류학에서도 성격유형에 따른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 MBTI를 이용하여 여대생의 의복평가기준을 연구<sup>7)</sup>하거나, 헤어스타일과 선호하는 의복이미지<sup>8)</sup>, 의복행동<sup>9)</sup>, 복식문양이미지를 평가하는 연구가 있다<sup>10)</sup>. 또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성격에 따라 의복을 평가하는 차이를 분석하거나<sup>11)</sup>, 의복라이프스타일과 의복구매행동<sup>12)</sup>, 퍼스널 컬러와 성격유형에 따른 색상선호도를 살펴보는 연구<sup>13)</sup>가 있으나, 성격유형과 체형에 관한 연구는 성격유형을

사상체질로 분류하여 관련성<sup>14)</sup>을 살펴보거나, BMI지수를 이용하여 분류하거나<sup>15)</sup>, 상의 운동복의 S, M, L치수로 특성을 분석<sup>16)</sup>하는 등 체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높이를 비롯한 둘레, 너비, 두께, 피하지방의 구체적인 직접측정 항목들로 분류하여 성격유형과의 관련성을 비교 제시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20대 여성들은 체형에 대한 자기인식이 높아<sup>17)</sup> 체형의 수척이나 비만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여성들의 체형인식이나 체형관리도 성격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직접 측정할 수 척이나 비만과 관련 있는 항목을 통해 자신의 체형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4세 여대생을 대상으로 직접측정을 실시하여 체형특성을 살펴보고, 성격유형검사서 객관성이 입증된 표준화 도구인 MBTI를 이용하여 성격유형을 분류하고 여대생의 체형과 성격유형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성격유형별 체형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기간

연구대상자는 부산 및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20~24세의 여대생 150명으로 2008년 3월부터 2008년 4월에 걸쳐 MBTI 성격유형검사 후 직접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자료가 미비한 26명을 제외한 124명의 자료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 2. MBTI 성격유형검사 및 측정도구

MBTI는 Jung의 심리유형이론을 근거로 하여 1900년대 Katharine Cook Briggs와 그의 딸 Isabel Briggs Myers가 70여년의 연구기간을 거쳐 보다 쉽고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자기보고식 성격유형지표이다. 정신과 의사였던 융은 여러 해 동안의 임상 관찰을 통해 인간은 누구나 감각, 직관, 사고, 감정이라는 4가지의 기본적인 기

능 또는 과정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 융이 제시한 4가지 과정은 일종의 지향 기능으로서 융은 이 기능을 다양한 조건 속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반응케 하는 특정 정신활동의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융은 4가지 정신 기능이 서로 관련되거나 하나로 합쳐질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구별하였다. MBTI는 인식과 판단에 대한 융의 심리적 기능(사고형/감정형/감각형/직관형)이론, 그리고 인식과 판단의 향방을 결정짓는 융의 태도(외향성/내향성)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제작되었다. 또한 개인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자기보고문항을 통해 인식하고 판단할 때의 각자 선호하는 경향을 찾고, 이러한 선호경향들이 하나하나 또는 여러 개가 합쳐져서 인간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여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다<sup>18)</sup>.

성격유형검사는 김정택·심혜숙<sup>19)</sup>이 한국어판으로 표준화한 MBTI 성격유형 진단지 Form GS를 사용하였다. MBTI는 전체 94문항으로, 외향-내향, 감각-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의 4가지 지표로 구성되어있다. 각 지표별로 2가지 선호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합하면 총 16가지 성격유형으로 구분된다. 검사결과는 성격의 옳고 그름 또는 개인의 역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의 선호경향을 나타낸다. MBTI 검사는 본 연구자가 한국심리검사연구소의 교육과정을 직접 이수한 후 실시하였다.

#### 1) MBTI의 4가지 선호지표(index)

Myers와 Briggs에 의하여 제작된 MBTI의 각 선호지표의 선호경향과 주요활동<sup>20)</sup>을 <표 1>에 나타내었다. MBTI에서의 선호경향이란 개인이 더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용하며 상대적으로 더 쉽고 편안하게 사용하는 타고난 경향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선천적인 태도와 기능들이 각각 어느 정도 의식적 발달 상태에 있거나 무의식적 상태에 머물러 있음으로 해서 발달수준에 차이가 생기게 되고 결국 개인간의 차이를 만들게 된다<sup>21)</sup>.

#### 2) MBTI의 16가지 성격 유형

4가지 선호지표를 조합하여 만들어진 16가지 성

**<표 1> MBTI의 선호지표와 특징적인 경향**

지 표	선호경향	주요활동
외향(E)-내향(I) Extraversion-Introversion	에너지의 방향은 어느 쪽인가	주의초점
감각(S)-직관(N) Sensing-iNtuition	무엇을 인식하는가	인식기능
사고(T)-감정(F) Thinking-Feeling	어떻게 결정하는가	판단기능
판단(J)-인식(P) Judging-Perceiving	채택하는 생활양식은 무엇인가	생활양식

**<표 2> 16가지 성격유형 위치도**

ISTJ 세상의 소금형 (대한민국21.5%)	ISFJ 임금뒤편의 권력형 (대한민국8.2%)	INFJ 예언자형 (대한민국2.4%)	INTJ 과학자형 (대한민국5.5%)
ISTP 백과사전형 (대한민국7.8%)	ISFP 성인군자형 (대한민국6.5%)	INFP 잔다르크형 (대한민국3.7%)	INTP 아이디어뱅크형 (대한민국3.3%)
ESTP 수완좋은 활동가형 (대한민국5.3%)	ESFP 사교적인 유형 (대한민국5.4%)	ENFP 스파크형 (대한민국3%)	ENTP 발명가형 (대한민국2.2%)
ESTJ 사업가형 (대한민국14.2%)	ESFJ 친선도모형 (대한민국6%)	ENFJ 언변능숙형 (대한민국1.8%)	ENTJ 지도자형 (대한민국3.4%)

격유형 도표는 MBTI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응용하는 기초가 된다. 이 도표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잘 알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의 일반인 성격유형 분포<sup>22)</sup>를 16가지 성격유형의 위치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표 2>에 나타내었다.

### 3. 직접측정방법 및 측정항목

측정기준선과 기준점은 R, Martin의 인체측정방법과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Size Korea)의 인체측정 표준용어집<sup>23)</sup>, KS A 7004(인체측정방법)<sup>24)</sup>에 준하여 측정하였으며, 용구는 Martin의 인체 측정기와 줄자를 사용하였고 보조용구로 고무벨트, 기준점 표시용 스티커를 사용하였다.

피험자는 신축성이 좋은 슬리브리스에 짧은 팬츠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발꿈치는 붙이고 발끝은 45°벌린 상태로 양팔은 자연스럽게 내린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직접 측정항목은 체형특성과 관련되는 48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BTI 진단지 94개 항목을 각 선호지표(E-I, S-N, T-F, J-P)별 분포율을 구하고, 선호지표간의 유의차 검정으로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16개의 성격유형으로 외향성과 내향성을 분류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직접 측

<표 3> 직접 측정항목

분류	측정 항목
높이	1.키 2.목뒤높이 3.어깨높이 4.겨드랑높이 5.허리높이 6.엉덩이높이 7.살높이
길이	8.어깨사이길이 9.겨드랑앞벽접힘사이길이 10.겨드랑뒤벽접힘사이길이 11.젖꼭지사이수평길이 12.목옆젖꼭지길이허리둘레선 13.등길이 14.위팔길이 15.팔길이 16.엉덩이수직길이
둘레	17.머리둘레 18.목밑둘레 19.가슴둘레 20.젖가슴둘레 21.젖가슴아래둘레 22.윗팔둘레 23.팔꿈치둘레 24.배꼽수준허리둘레 25.허리둘레 26.엉덩이둘레 27.넙다리둘레 28.무릎둘레 29.장딴지둘레
너비	30.머리너비 31.어깨너비 32.가슴너비 33.젖가슴너비 34.허리너비 35.엉덩이너비
두께	36.가슴두께 37.젖가슴두께 38.겨드랑두께 39.허리두께 40.엉덩이두께
피하지방 두께	41.견갑아래부위피하지방두께 42.위팔피하지방두께 43.엉덩뺨(앞장릉)피하지방두께 44.안쪽하퇴부위피하지방두께 45.아랫배돌출부위점 46.뒤장릉피하지방두께 47.앞겨드랑부위피하지방두께
무게	48.몸무게

<표 4> 여대생의 선호지표별 분포율

(단위 : N, %)

성격지표	외향-내향		감각-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	
	외향성 (E)	내향성 (I)	감각형 (S)	직관형 (N)	사고형 (T)	감정형 (F)	판단형 (J)	인식형 (P)
분포율 (124)	80 (64.5)	44 (35.5)	85 (68.5)	39 (31.5)	67 (54.0)	57 (46.0)	74 (59.7)	50 (40.3)

정한 48개 항목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산출하고, Size Korea(2004)의 평균치와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직접측정항목과 성격유형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MBTI 성격유형에 의한 분류

##### 1) MBTI의 선호지표에 따른 분류

MBTI 성격유형검사서 분류된 4가지 선호지표별 분포율은 <표 4>에, 여대생의 선호지표별 분포는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여대생의 성격유형을 선호지표별로 분류한 결과 (표 4), 실제의 경험을 중시하며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감각형이 68.5%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사고적이며 정열적이고 활동적인 외향성이 64.5%, 분명한 목적의식과 방향감각으로 철저히 사전계획하고 체계적인 판단형이 59.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조용하고 신중한 내향성이 35.5%, 영감에 의존하며 미래지향적인 직관형이 31.5%로 낮은 분포를 보여, 외향-내향과 감각-직관에서 다소 큰 분포율의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의 성격유형별 의복평가의 차이 연구<sup>25)</sup>에서 감각형(64%)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여 본 연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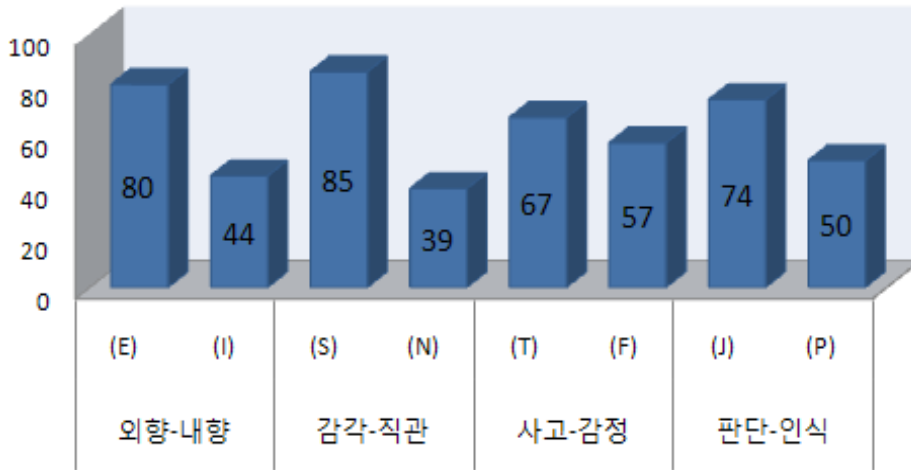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내향성(64%), 감정형(52%), 인식형(53%)에서도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10대~50대 성인 여성의 성격유형별 의복라이프스타일과 의복구매행동연구<sup>26)</sup>에서도 외향성(52%), 감각형(73%), 사고형(59%), 판단형(57%)순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대구지역 남녀 재학생을 대상으로 MBTI 성격유형을 분류한 결과<sup>27)</sup> 감각형(69.3%), 사고형(59.4%)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나, 외향성(43.6%)이 내향성(56.4%)보다 낮은 분포를 나타내었고, 판단형과 인식형에서 각각 51.5%, 48.5%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판단형이 59.7%, 인식형이 40.3%로 차이를 보여 지역적인 차이와 남녀 성별의 차이가 선호경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20대~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태희<sup>28)</sup>의 연구와 비교한 결과, 선호지표 중 감각형, 사고형, 외향형, 판단형 순으로 각각 73.4%, 66.1%, 61.7%, 61.7%로 높은 분포를 보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1>의 본 연구 여대생의 성격유형별 분포사례에서 외향-내향, 감각-직관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고형과 감정형은 선호지표끼리 8% 정도의 다소 적은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여대생의 선호지표별 평균값과 대응표본 t-test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의 결과, 모든 선호지표별 성격유형끼리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S(감각)-N(직관)은 유의수준 P<0.001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J(판단)-P(인식)에서 유의수준 P<0.01, T(사고)-F(감정)와 E(외향)-I(내



<그림 1> 본 연구 여대생의 성격유형별 분포사례(N)

<표 5> 여대생의 선호지표별 평균값 및 대응표본 t - test

점수 \ 선호지표	외향성 (E)	내향성 (I)	감각형 (S)	직관형 (N)	사고형 (T)	감정형 (F)	판단형 (J)	인식형 (P)
평균	14.56	11.75	17.27	12.49	13.42	11.09	15.93	12.50
표준편차	6.68	6.96	5.73	3.90	6.56	4.38	6.96	7.05
t - value	2.31*		5.88***		2.47*		2.74**	

\*P<0.05, \*\*P<0.01, \*\*\*P<0.001

향)는 유의수준  $P \leq 0.05$ 에서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감각형의 평균은 17.27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감정형의 평균은 11.09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융은 모든 인식 활동을 감각과 직관으로 나누었는데<sup>29)</sup>, 감각형(S)이란 우리의 감각을 통해 관찰하는 인식으로 현재 일어나는 일과 직접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관찰능력이 뛰어나고 상세한 것까지 기억을 잘하는 반면, 직관형(N)이란 통찰을 통해 가능성, 의미, 관계를 인식하는 것으로 육감, 예감, 창의적인 발견이 여기에 속하며,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포함하여 감각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인식하며 이러한 사람들은 상상적, 추상적, 미래지향적 또는 창조적인 특징을 발달시킨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현재 대학생이므로, 육감이나 예감을 통한 정보인식보다는 구체적인 학문적 사실이나 경험적인 관찰을 통한 연구를 수행하므로, S(감각)-N(직관)의 선호지표에서 차이가 더욱 큰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선호지표에서 큰 차이를 보인 판단형(J)과 인식형(P)은 외부세계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나타내며, 티와 함께 주기능, 부기능을 찾을 때 사용된다고 이사벨 마이어스와 캐서린 브릭스에 의해 정의되었다<sup>30)</sup>. JP태도는 행동관찰에서 발견되었는데, J형은 외부 세계에 대처할 때 감정, 사고라는 판단기능을 선호하고, P형은 감각, 직관이라는 인식기능을 선호한다. 인식적 태도(P)를 선호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들어오는 정보 그 자체를 즐기는데, 감각적 인식형(SP)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정보를 잘 받아들이며, 직관적 인식형(NP)은 새로운 가능성을 내다보려 한다. 이들의 태도는 개방적이고 호기심, 관심이 많으며, 외부로 나타내는 행동을 보면 자발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적응력이 높다. 판단적 태도(J)를 선호하는 사람은 빨리 결정을 잘 내리려고 하고, 결정을 내릴 만큼의 정보를 얻었다 싶으면 재빨리 결론에 도달하려 한다. 사고적 판단형(TJ)은 논리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감정적 판단형(FJ)은 결정을 내리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 인간적이 요인을 많이 고려한다. 판단적 태도(J)를 선호하는 사람은 행동들이 조직화되어 있고 목표가 뚜렷하며 확고해 보인다.

MBTI에서 말하는 판단(J)이란 의사결정, 판단의 실행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의 여대생들은 조직적인 학교 교육 속에서 논리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정보를 얻고 재빨리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 환경에 익숙해 있으며, 정해진 시간 내에 성격유형검사를 받게 되므로 판단적 태도(J)의 선호가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광주에 거주하는 19세 부터 23세 신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재은<sup>31)</sup>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성격특질의 원 점수 중 내향성의 평균값은 16.58(151명), 외향성의 평균값은 18.98(175명)의 높은 분포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서울, 경기, 충청, 강원지역의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체격별 성격유형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sup>32)</sup>에서 감각형의 원 점수 평균이 18.30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여 논리, 분석적인 정보 수집 기능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S(감각)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선호경향과 자신이 선택하는 직업이나 직무 분야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 2) MBTI의 16가지 성격유형에 따른 분류

MBTI의 16가지 성격유형의 주기능 사례<sup>33)</sup>는 의식적으로 가장 선호하여 활발하게 사용하는 기능으로 개인성격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표 6>에, MBTI의 16가지 성격유형분포도는 <그림 2>에 나타내었다.

<표 6>의 연구결과, 본연구의 여대생들은 사무적, 실용적 현실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며 활동을 조직화하고 주도해 나가기 좋아하는 ESTJ가 16가지 성격유형들 중 가장 많은 18.5%였으며, 우호적 사람들로 사고적이며 태평스럽고 수용적이고 친절하며 운동을 좋아하고, 주위에 끼어들기 좋아하며 구체적인 사실을 잘 기억하는 ESFP가 13.7%, 친절과 현실감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봉사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조화를 중시하는 ESFJ와 신중하고 조용하며 집중력이 강하고 구체적, 체계적, 사실적 논리적, 현실적인 성격을 띠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ISTJ가 9.7%의 분포를 보였다. 반면, 이

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며 정열적이고 학습, 아이디어, 언어, 자기 독립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INFP는 0.8%를 차지하였다.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체계별 성격유형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sup>34)</sup>에서도 ESTJ는 가장 많은 18.29%, ISTJ가 15.71%로 본 연구와 유사한 분포율을 보였으며, 여자대학생의 성격유형에 대한 연구 결과<sup>35)</sup>에서도 ISTJ가 16.9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ESTJ가 13.18%로 역시 유사한 분포율을 보여 대부분의 한국대학생들은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잘 다루며(ISTJ), 외부세계에 논리적,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결단력이 있다(ESTJ)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기업들 중 한기업체에서 채용한 신입사원들의 성격유형 연구<sup>36)</sup>에서 20대 중반의 신입사원들은 외향성(55%)이 약간 높았으며, 감각형(73%),

사고형(77%), 판단형(64%)비율이 높게 나타나 대체로 자기 표현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현실적이며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ISTJ, ESTJ형이 대부분이었다. 인간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업무중심의 가치에 기울어지는 감각형(74%)과 사고형(78%)이 대다수로, 한국인들이 대체로 내향성의 비율이 외향성보다 높으나 20대 중반의 기업체 남자신입사원들은 외향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취업의 경쟁 속에서 적극적인 자기표현의 요구에 적응해 나간 결과이며 환경이 요구하는 대로의 임의적 선호경향으로 자신의 선호도를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다소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결과를 보인 본 연구의 여대생들 역시, 취업을 앞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본래 선호경향과 사회가 요구하는 경향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으며 자신의 선호도를 변화시키며 적응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6> MBTI의 16가지 성격유형별 주기능 사례

(단위 : 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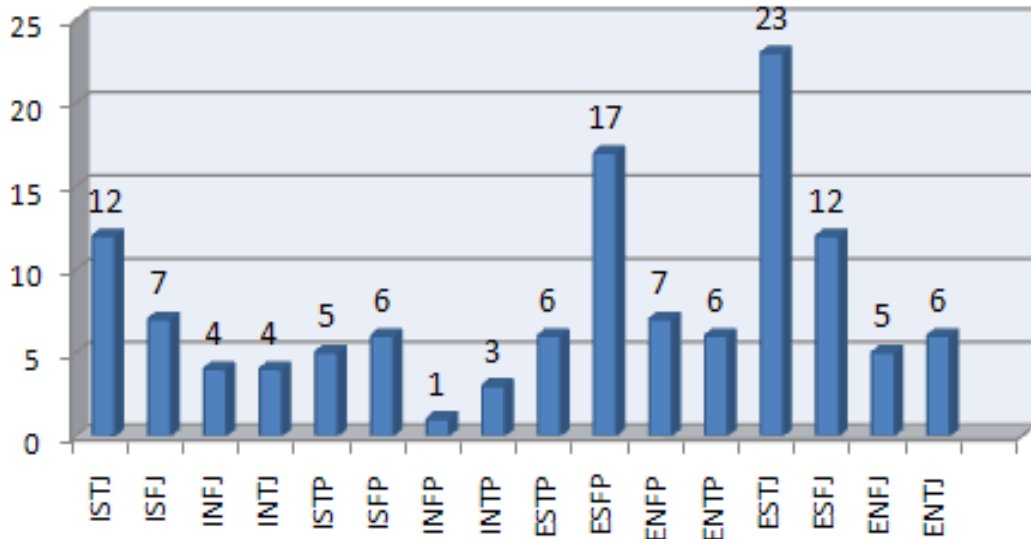
주기능	성격유형	사례	주기능이 잘 발휘될 때
S(i)	ISTJ	12(9.7)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잘 다룬다.
	ISFJ	7(5.6)	
S(e)	ESTP	6(4.8)	다양한 외부세계에 대한 경험을 즐겁게 잘 받아들인다.
	ESFP	17(13.7)	
N(i)	INFJ	4(3.2)	자신의 명확하고 복합적인 통찰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다.
	INTJ	4(3.2)	
N(e)	ENFP	7(5.6)	가능성과 다양성에 대한 열정과 통찰력을 이 있다.
	ENTP	6(4.8)	
T(i)	ISTP	5(4.0)	효과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를 창출하고 적용시킨다.
	INTP	3(2.4)	
T(e)	ESTJ	23(18.5)	외부세계에 논리적,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결단력이 있다.
	ENTJ	6(4.8)	
F(i)	ISFP	6(4.8)	자신 및 타인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지지해준다.
	INFP	1(0.8)	
F(e)	ESFJ	12(9.7)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사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 조화를 유도한다.
	ENFJ	5(4.0)	



2. 여대생의 직접 측정치 측정결과

본 연구대상자들의 체형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직접 측정한 48개 항목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고, 그 결과를 <표 7>에 나타내었다.



<그림 2> 본 연구여대생의 MBTI 16가지 성격유형분포도(N)

<표 7> 여대생의 직접 측정치의 기술통계량

(단위: cm,kg)

항목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키	160.49	5.15	149.40	175.00
목뒤높이	135.58	4.86	124.80	150.00
어깨높이	130.38	5.11	116.80	145.80
겨드랑높이	114.54	4.52	105.30	127.00
허리높이	99.66	4.23	89.50	110.80
엉덩이높이	79.56	3.76	68.60	89.00
살높이	72.62	3.40	64.80	81.00
어깨사이길이	37.86	3.78	34.30	45.50
겨드랑앞벽접힘사이길이	29.80	1.73	25.30	36.00
겨드랑뒤벽접힘사이길이	30.71	2.24	26.00	42.00
젖꼭지사이수평길이	16.77	1.10	13.50	19.00
목옆젖꼭지길이허리둘레선	39.62	2.18	30.00	46.50
등길이	36.56	2.00	27.50	41.50
위팔길이	30.40	1.47	26.50	34.00
팔길이	55.11	3.40	48.50	61.00

\*P≤0.05, \*\*P≤0.01, \*\*\*P≤0.001

<표 7> 여대생의 직접 측정치의 기술통계량(계속)

(단위: cm,kg)

항목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엉덩이수직길이	27.45	1.67	25.20	31.50
머리둘레	54.52	4.95	51.00	58.50
목밑둘레	36.72	3.79	32.00	42.00
가슴둘레	80.45	5.31	70.40	111.70
젖가슴둘레	83.22	5.34	74.20	115.00
젖가슴아래둘레	72.75	5.37	61.80	104.20
윗팔둘레	25.42	2.07	21.50	32.70
팔꿈치둘레	22.47	1.36	19.50	27.80
배꼽수준허리둘레	74.32	5.83	62.00	101.00
허리둘레	65.49	5.48	57.20	99.00
엉덩이둘레	90.70	4.90	83.30	106.50
넙다리둘레	52.08	4.51	45.30	71.00
무릎둘레	35.07	2.01	31.00	45.00
장딴지둘레	33.98	2.06	29.00	43.20
머리너비	15.03	0.59	12.10	16.70
어깨너비	36.13	1.36	32.60	41.00
가슴너비	27.78	1.85	20.70	34.20
젖가슴너비	25.47	1.93	22.70	35.90
허리너비	22.75	2.35	19.70	31.20
엉덩이너비	32.05	1.71	29.10	39.90
가슴두께	17.37	1.55	10.00	25.50
젖가슴두께	20.85	2.09	16.80	31.60
겨드랑두께	10.26	0.99	8.00	14.30
허리두께	16.58	1.93	14.00	27.30
엉덩이두께	20.89	1.99	9.30	29.50
견갑아래부위피하지방두께	6.84	2.39	3.60	18.50
위팔피하지방두께	8.13	2.03	4.00	12.20
엉덩빼피하지방두께	6.10	2.06	2.40	12.60
안쪽하퇴부위피하지방두께	7.69	2.15	3.00	14.30
아랫배돌출부위점	6.92	2.89	3.20	14.80
뒤장릉피하지방두께	10.64	3.68	3.00	19.80
앞겨드랑부위피하지방두께	4.70	1.82	1.80	12.70
몸무게	51.83	6.46	40.00	85.00

\*P≤0.05, \*\*P≤0.01, \*\*\*P≤0.001

본 연구대상자들의 키는 160.49cm, 몸무게 51.83g, 젖가슴둘레 83.22cm, 허리둘레 65.49cm, 엉덩이둘레는 90.70cm로 나타났다.

손희순<sup>37)</sup>의 연구에서 한국 20대 성인여성의 평균 키는 159.85cm, 몸무게 52.96kg, 젖가슴둘레 83.26m, 허리둘레 67.88cm, 엉덩이둘레는 91.20cm로 1994년과 비교해, 본 연구대상자들의 키는 0.5cm정도 더 커졌으며, 몸무게 1kg 정도 줄었고, 허리둘레 2cm, 엉덩이둘레는 0.5cm 더 작아져, 키는 커지고 둘레는 가늘어진 다소 날씬해진 체형임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인 여성의 표준체형과 비교해 보면<sup>38)</sup> 대상자들의 평균키는 162.5cm, 젖가슴둘레 80.0cm, 허리둘레 64.0cm, 엉덩이둘레 89.0cm, 어깨사이길이 40.0cm, 등길이 38.0cm로 본 연구의 여대생들이 키는 2cm 더 작았으며, 젖가슴둘레는 3cm 크고, 허리와 엉덩이둘레는 1.5cm 더 굵게 나타나 표준체형과는 다소 차이를 보여 키는 작고 둘레는 발달한 다소 뚱뚱해진 체형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최인려·방혜경<sup>39)</sup>의 연구와 비교한 결과, 허리둘레는 유사하나 본 연구의 결과가 키 0.5cm, 젖가슴둘레 2.5cm, 엉덩이둘레 1.5cm, 몸무게 0.5kg정도 다소 크게 나타나 지역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대상자들의 직접 측정치와 Size Korea(2004)<sup>40)</sup>의 한국인의 표준체형에서 20~24세 여성의 표준체형과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8>에 나타내었다.

<표 8>에서 본 연구대상자들의 직접 측정치와 Size Korea(2004)의 표준체형 측정치를 t-test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몸무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본 연구대상자들이 젖가슴둘레는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키와 몸무게를 비롯한 다른 항목에서는 0.2~2cm정도 작게 나타나, Size Korea(2004)의 표준체형에 비해 키는 작고 젖가슴은 발달하였으며 허리, 엉덩이는 다소 수척한 집단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들의 측정치가 Size Korea(2004)의 표준체형 측정치보다 젖가슴 둘레는 크게, 엉덩이둘레는 작게 나타나, 엉덩이둘레와 젖가슴둘레의 차이를 나타내는 Drop value는 Size Korea(2004)의 표준체형 측정치보다 작았으며, 본 연구대상자들의 키와 몸무게가 Size Korea(2004)보다 작아 Röhler Index 판정에서도 본 연구대상자들이 다소 수척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 3. 직접 측정항목과 성격유형 비교

#### 1) 직접 측정항목과 선호지표의 상관관계

여대생의 직접 측정항목과 성격유형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는 <표 9>에 나타내었으며, 전체 48개 항목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24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표 8> 여대생의 직접 측정치와 Size Korea(2004)와 비교

(단위: cm,kg)

항목	본 연구	Size Korea (2004)	t-value
키	160.49	160.70	-.45
목말둘레	36.72	36.50	1.61
젖가슴둘레	83.22	81.90	2.76**
허리둘레	65.49	67.10	-3.28***
엉덩이둘레	90.70	91.20	-1.28
몸무게	51.83	53.50	-2.88**
Drop value	7.48	9.30	-
Röhler Index	1.25	1.29	-

\*P≤0.05, \*\*P≤ 0.01, \*\*\*P≤0.001

<표 9> 직접 측정항목과 성격유형의 상관관계

선호지표 항목	E	I	S	N	T	F	J	P
키	-.208*	.178*	-.023	.187*	.094	-.028	-.214*	.211*
목뒤높이	-.207*	.172	-.010	.175	.128	-.054	-.210*	.202*
어깨높이	-.238**	.205*	.016	.142	.077	.002	-.190*	.181*
거드랑높이	-.194*	.169	-.078	.202*	.116	-.029	-.190*	.196*
허리높이	-.177*	.152	-.032	.164	.041	.007	-.148	.128
엉덩이높이	-.188*	.155	-.061	.190*	.068	.026	-.161	.171
살높이	-.173	.131	-.072	.204*	.095	-.007	-.159	.163
거드랑앞벽접 힘사이길이	-.018	.007	-.088	.161	.135	-.149	-.201*	.209*
젓꼭지사이 수평길이	-.022	-.029	-.039	.040	.251**	-.238**	-.116	.111
목옆젓꼭지길 이허리둘레선	.080	-.086	-.140	.106	-.013	.046	-.273**	.263**
등길이	-.163	.160	.054	.047	.109	-.015	-.226*	.241**
위팔길이	-.115	.085	-.166	.183*	.076	-.068	-.304**	.307**
팔길이	-.102	.106	-.121	.140	-.029	.092	-.316***	.328***
가슴둘레	-.080	.091	.005	.006	.083	-.093	-.205*	.208*
젓가슴둘레	-.042	.048	-.040	.044	.057	-.073	-.204*	.207*
머리너비	.064	-.107	-.142	.190*	-.136	.127	-.146	.146
어깨너비	-.209*	.200*	-.209*	.243**	.066	-.085	-.148	.178*
가슴너비	.064	-.077	-.065	.075	.101	-.077	-.185*	.183*
젓가슴너비	.015	-.012	-.106	.092	.099	-.114	-.200*	.200*
엉덩이너비	-.099	.116	-.055	.092	.226*	-.177*	-.058	.058
가슴두께	-.051	.043	-.001	.028	.202*	-.153	-.128	.109
아랫배돌출 부위점	-.080	.073	-.168	.232**	.011	-.089	-.054	.065
뒤장릉피하 지방두께	-.186*	.206*	.060	-.076	-.054	.076	-.061	.048
앞거드랑부위 피하지방두께	.004	.015	-.156	.187*	-.036	-.031	-.096	.113

\*P≤0.05, \*\*P≤ 0.01, \*\*\*P≤0.001

직접 측정항목과 선호지표와의 상관관계(표 9)를 성격유형의 선호지표별로 살펴보면, 외향성(E)은 키를 비롯한 높이항목과 어깨너비, 뒤장릉피하지방두께항목이 유의수준 P≤0.05에서 역 상관을 보였다.

며, 어깨높이는 P≤0.01에서 더욱 유의미한 역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향성이 클수록 키가 작고 뒤장릉피하지방두께가 적으며 어깨부위가 작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내향성(I)은 키, 어깨높

이, 어깨너비, 뒤통스피하지방두께항목이 유의수준  $P \leq 0.05$ 에서 정 상관을 보여 내향성이 클수록 키가 크고 뒤통스피하지방이 두꺼우며, 어깨가 넓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감각형(S)은 직접 측정항목 48개 항목 중 어깨너비에서만 유의수준  $P \leq 0.05$ 에서 역 상관을 보인 것으로 보아 이러한 성격유형은 외부요인에 따른 변화가 많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직관형(N)은 키, 겨드랑높이, 엉덩이높이, 살높이, 위팔길이, 머리너비, 어깨너비, 아랫배돌출부위점피하지방두께, 앞겨드랑부위피하지방두께항목 등의 가장 많은 항목에서 유의수준  $P \leq 0.05$ 의 유의미한 정 상관을 보여 이 유형들은 키와 겨드랑높이가 높으며 또한 엉덩이높이, 살높이가 높은 것으로 보아 하체도 길고 아랫배부위가 발달하여 피하지방층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사고형(T)은 젖꼭지사이수평길이, 가슴두께, 엉덩이너비에서 유의수준  $P \leq 0.05$ 의 정 상관을 보여 가슴이 발달하고 엉덩이가 다소 큰 체형이었다. 감정형(F)은 젖꼭지사이수평길이, 엉덩이너비에서 유의수준  $P \leq 0.05$ 의 역 상관을 보여 가슴과 엉덩이가 전체적으로 밋밋하고 마른 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형(J)은 키, 목뒤높이, 어깨높이, 겨드랑높이, 겨드랑앞벽접힘사이길이, 목옆젖꼭지길이허리둘레선, 등길이, 위팔길이, 팔길이, 가슴둘레, 젖가슴둘레, 가슴너비, 젖가슴너비에서 유의수준  $P \leq 0.05$  역 상관을 보여 이 유형은 키를 비롯한 높이, 길이, 둘레, 너비 항목이 작고 특히, 가슴부위의 상체가 좁은 키가 작고 팔은 짧아 다소 왜소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식형(P)은 어깨너비를 포함하여 판단형(J)과 동일항목에서 유의수준  $P \leq 0.05$ 의 정 상관을 보여 키를 비롯한 높이항목이 크고 어깨와 가슴부위의 둘레, 너비가 발달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 측정항목과 선호지표와의 상관관계(표 9)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높이항목에서는 외향성(E)와 판단형(J)이 역 상관을 보여 높이가 높을수록 외향성과 판단형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키를 비롯한 높이가 높을수록 내향성, 직관형, 인식형은 정 상관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길이항목에서 팔 부위는 직관형(N), 인식형(P)과 정 상관을, 감정형(F), 판단형(J)은 역 상관을 보였다. 둘레와 너비, 두께

항목에서 어깨너비가 넓을수록 I, N, P유형과 정 상관을 보였으며, 머리너비와 어깨너비가 넓을수록 직관형(N)과 정 상관을, 가슴부위가 클수록 인식형(P)과 정 상관을, 가슴부위가 작을수록 판단형(J)과 역 상관을 보였으며, 가슴이 두껍고 엉덩이너비가 넓을수록 사고형과 정 상관을 보였다. 어깨 너비가 넓을수록 I, N, P유형과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어깨너비가 좁을수록 E, S유형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피하지방두께항목에서는 아랫배돌출부위와 앞겨드랑부위의 피하지방이 두꺼울수록 직관형과 상관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직접 측정항목과 선호지표와의 상관관계(표 8)를 Sheldon의 유형론과 비교해 보면<sup>41)</sup>, 내향성(I)이 클수록 키가 크고 어깨높이가 높고 넓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외배엽형(Ectomorph)의 가슴이 판판하고 몸통이 가늘고 직선적인 체형특징과 마음가짐이 좁고 동작이 작으며 조심성이 많고 내향적인 성격특징과 내향성(I)의 선호경향과 유사한 부분을 보였다. 직관형(N)은 키와 겨드랑 높이가 높으며, 머리너비와 어깨너비도 넓고, 위팔길이항목에서도 상관을 보여, 골격과 근육이 잘 발달된 체격은 단단하며 직각을 이루며 성격은 모험적이고 용기가 있다는 중배엽형(Mesomorph)의 특징을 보여, 구체적인 현실을 보기보다 가능성을 추구하고 상상적, 추상적, 미래지향적인 직관형(N)의 선호경향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식형(P)은 키를 비롯한 높이항목과 상관을 보였으나 어깨너비를 포함한 겨드랑앞벽접힘사이길이, 젖가슴부위의 둘레와 너비에서 상관을 보여, 근골이 잘 발달되지 않았으며 대체로 부드럽고 둥근 체형인 내배엽형(Endomorph)과 유사함을 보였으며, 항상 여유 있고 편안한 것을 즐기며 먹기를 즐기는 식도락가, 우호적이며 관대하고 참을성이 많은 성격은 호기심이 많고 관심이 많아 정보 그 자체를 즐기며 외부로 나타내는 행동은 자발적이고 적응력이 높으며, 새로운 사건이나 변화에 개방적이며 아무 것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들여야 하는 인식형(P)과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0> 직접 측정항목 평균값과 성격유형 선호지표간의 t-test

(단위: cm,kg)

항목	외향-내향(N)		t-value	판단-인식(N)		t-value
	E(N80)	I(44)		J(74)	P(50)	
키	159.34	162.57	-3.48***	159.75	161.59	-1.98*
목뒤높이	134.51	137.52	-3.44***	134.86	136.64	-2.038*
어깨높이	129.17	132.55	-3.70***	129.74	131.29	-1.67
겨드랑높이	114.15	116.86	-3.32***	114.49	116.02	-1.86
허리높이	98.89	101.04	-2.84**	99.35	100.10	-.98
엉덩이높이	78.85	80.85	-2.92**	79.28	79.98	-1.02
살높이	71.98	73.79	-2.89**	72.38	72.98	-.96
겨드랑앞벽접힘사이길이	29.75	29.90	-.48	29.47	30.30	-2.68**
목옆젖꼭지길이허리둘레선	39.64	39.59	.14	39.08	40.42	-3.54***
등길이	36.24	37.14	-2.43*	36.13	37.18	-2.95**
위팔길이	30.26	30.64	-1.36	30.08	30.85	-2.91**
팔길이	54.85	55.58	-1.84	54.69	55.74	-2.76**
가슴둘레	80.22	80.88	-.70	79.62	81.68	-2.26*
젖가슴둘레	83.11	83.44	-.34	82.32	84.56	-2.33*
배꼽수준허리둘레	74.48	74.03	.41	73.42	75.65	-2.11*
어깨너비	35.94	36.48	-2.19*	36.00	36.32	-1.29
가슴너비	27.88	27.58	.94	27.47	28.22	-2.44*
젖가슴너비	25.52	25.38	.38	25.14	25.94	-2.32*
가슴두께	17.38	17.35	.11	17.14	17.71	-2.04*
겨드랑두께	10.37	10.06	1.68	10.10	10.50	-2.27*
뒤장릉피하지방두께	10.15	11.53	-2.19*	10.43	10.96	-.85

\*P≤0.05, \*\*P≤ 0.01, \*\*\*P≤0.001

2) 직접 측정항목의 평균값과 성격유형 선호 지표간의 비교

여대생의 직접 측정항목의 평균값과 성격유형 선호지표인 외향-내향, 판단-인식을 t-test를 통해 살펴본 결과, 그 결과를 <표 10>에 나타내었다. 전체 48개 항목 중 외향-내향, 판단-인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21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직접 측정항목의 평균값과 상반되는 성격유형 선호지표를 각각 t-test를 통해 살펴본 결과, 키를 비롯한 모든 높이항목에서 외향-내향 특성간의 1.8~3.2cm정도 차이를 보였다. 특히, 키, 목뒤높이, 어깨

높이, 겨드랑높이는 유의수준 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허리높이, 엉덩이높이, 살높이는 P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밖에도 등길이 어깨너비, 뒤장릉피하지방두께항목이 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들 10개 항목에서 모두 외향보다 내향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 환경의 자극을 찾아 나서는 행동 지향적인 외향적 태도의 여대생보다 자기 내부 세계의 개념과 관념으로 명상에 잠기기를 좋아하는 내향적 태도의 여대생이 키를 포함한 높이항목 큰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인식에서는 <표 10>에 제시된 21개 항목

모두 판단형보다 인식형의 평균값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목옆젓꼭지길이허리둘레선은 유의수준  $P \leq 0.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겨드랑앞벽접합 사이길이, 등길이, 위팔길이, 팔길이의 길이항목은 모두  $P \leq 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밖에도 가슴부위의 둘레 너비 두께와 배꼽수준허리둘레, 겨드랑두께에서 유의수준  $P \leq 0.05$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판단-인식 역시 외부세계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나타내는데, 자기에게 들어오는 정보 그 자체를 즐기며 정보를 느긋하게 받아들이고 호기심이 많은 인식적 태도(P)의 여대생보다 빨리 결정을 잘 내리고, 계획을 잘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활동을 펴는 판단적 태도(J)의 여대생이 키와 목뒤높이가 작고 팔길이도 작으며 가슴둘레, 너비, 두께 항목이 작아 팔은 짧고 다소 왜소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감각-직관에서는 겨드랑높이 항목에서만 유의수준  $P \leq 0.05$ 의 유의차를 보였으며, 감각형 여대생의 평균값과 직관형 여대생 39명의 평균값이 서로 0.02~1.7cm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고-감정에서는 젓꼭지사이수평길이에서 유의수준  $P \leq 0.05$ 의 유의차를 보였으며, 사고형 여대생의 평균값이 감정형 여대생 57명의 평균값보다 0.01~1정도 크게 나타났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패션에 관심이 높은 20~24세 여대생을 대상으로 직접측정을 실시하여 체형특성을 살펴보고, 성격유형검사 도구로 객관성이 입증된 MBTI를 이용하여 원점수를 구하여, 체형과 성격유형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성격유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MBTI에서 분류된 4가지 선호지표에서 감각형의 평균값은 17.27, 분포율은 68.5%, 외향성은 평균값 14.56, 분포율 64.5%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관형이 31.5%, 평균값 12.49, 내향성이 35.5%, 평균값은 11.75, 인식형이 40.3%, 평균값은 12.50 순으로 분포율이 낮았으며, 감정형은 평균값이 가장 낮은 11.09였으며, 본 연구의 여대생은 외향성이 내

향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MBTI의 16가지 성격유형 분포율은 ESTJ, ESFP, ISTJ와 ESFJ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INTP, INFP순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2. 본 연구대상자들의 키는 160.49cm, 몸무게 51.83kg, 젓가슴둘레 83.22cm, 허리둘레 65.49cm, 엉덩이둘레는 90.70cm로 나타났다. Size Korea(2004)의 표준체형 측정치와 t-test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젓가슴둘레, 허리둘레, 몸무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본 연구대상자들이 젓가슴둘레는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키와 몸무게를 비롯한 다른 항목에서는 0.2~2cm정도 작게 나타났다.

3. 여대생의 직접 측정항목과 성격유형의 상관성을 MBTI 선호지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외향성(E)은 키를 비롯한 높이항목, 어깨너비, 뒤장릉피하지방두께항목에서 역 상관,반대로 내향성(I)은 정 상관을 보였다. 감각형(S)은 어깨너비에서만 역 상관을, 직관형(N)은 가장 많은 항목에서 정 상관을 보였다. 사고형(T)은 젓꼭지사이수평길이, 가슴두께, 엉덩이너비에서 정 상관을, 반대로 감정형(F)에서는 역 상관을 보였으며, 판단형(J)은 높이, 길이, 가슴부위항목에서 역 상관을, 인식형(P)은 어깨너비를 포함한 판단형(J)과 동일항목에서 정 상관을 나타내었다. 직접 측정항목의 평균값과 성격유형 선호지표를 각각 t-test를 통해 살펴본 결과, 외향-내향에서는 키를 비롯한 모든 높이항목에서 서로 1.8~3.2cm정도 차이를 보였다. 이들 10개 항목에서 모두 외향보다 내향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판단-인식에서는 21개 항목 모두 판단형보다 인식형의 평균값이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체형과 성격유형(MBTI)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연구대상자 부산, 경남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피험자의 수가 적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향후 비만여성의 사례를 추가하여 비만여성을 대상으로 한 체형과 성격유형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비만체형이 될 수 있는 요인과 성격과의 관련성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는 의복생산 뿐만 아니라 체형관리 및 건강다이어트 관련 산업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1) 정명숙(1994), "성인 여성 체형의 분류 및 연령  
층별 특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5.
- 2) 이순원 외(2002), *의복체형학*, 교학연구사, p. 79.
- 3) 심부자(1996), *의복인간공학*, 교문사, pp. 192-196.
- 4) 최선영(2005), "고등학생의 체형과 체형인식도  
에 따른 성격유형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용  
인대학교 재활보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3-32.
- 5) 이인자·이경희·신효정(2001), *의상심리*, 교문  
사, pp. 133-136.
- 6) 김정택·심혜숙·제석봉(1995), *MBTI 개발과  
활용*, 한국심리검사연구소, pp 304-322.
- 7) 오현남(2004), "여대생의 의복평가기준과 성격  
유형과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8),  
pp. 123-132.
- 8) 오지영·김영철(2006), "대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헤어스타일과 의복이미지 선호 연구", *복식  
문화연구*, 14(4), pp. 635-646.
- 9) 전명숙·김용임(2001), "여대생의 의복행동과  
MBTI 성격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  
지*, 10(1), pp. 57-71.
- 10) 남기선·한명숙(2004), "성격유형에 따른 복식  
문양 이미지를 평가하는 연구", *복식문화연구*,  
12(1), pp. 59-72.
- 11) 오현정(2001), "소비자의 성격유형별 의복평가의  
차이", *한국의류학회지*, 25(2), pp. 249-258.
- 12) 권보애·오현정(2004), "성격유형별 의복라이프  
스타일과 의복구매행동", *한국의류학회지*,  
28(7), pp. 927-938.
- 13) 김태희(2008), "퍼스널 컬러와 성격유형에 따른 색  
상선호도",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5.
- 14) 최현민(2005), "체격, 체력, 신체조성 및 성격유  
형과 사상체질과의 상관관계", 경희대학교 대학  
원 체육학과 박사학위논문. p. 36.
- 15) 최선영, op.cit., pp 23-32.
- 16) 박영민(2004), "MBTI를 이용한 체격별 성격유형  
의 특성 분석", *고려대학교 한국체육교육학회*,  
8(4), pp. 118-127.
- 17) 이정임·남윤자(2003), "체형에 대한 자기의 인  
식과 타인의 인식 비교",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4), pp. 372-378.
- 18) 김정택·심혜숙·제석봉, op.cit., pp. 304-322.
- 19) 김정택·심혜숙(1990), *MBTI 프로파일*, 한국심  
리검사연구소, p. 5.
- 20) 오현정, op.cit., pp. 249-258.
- 21) 전명숙·김용임, op.cit., pp. 57-71.
- 22) 김정택·심혜숙·제석봉, op.cit., pp. 304-322.
- 23)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편)(2004), *인체측정 표  
준용어집*.
- 24) 한국산업규격(편)(1999), *인간공학적 설계를 위  
한 인체측정*, KS A 7004, pp. 7-22.
- 25) 오현정, op.cit., pp. 249-258.
- 26) 권보애·오현정, op.cit., pp. 927-938.
- 27) 오지영·김영철, op.cit., pp. 635-646.
- 28) 김태희, op.cit., p. 25.
- 29) 김정택·심혜숙·제석봉, op.cit., pp. 304-322.
- 30) Ibid., pp. 304-322.
- 31) 주재은(1998), "신세대 여성의 성격특질과 신체  
만족도에 따른 의복 이미지 선호도", 전남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3-34.
- 32) 박영민, op.cit., pp. 118-127.
- 33) 심혜숙·김정택(1991), *MBTI 전문자격교육 초  
급과정자료집*, 한국MBTI연구소. pp. 16-17.
- 34) 박영민, op.cit., pp. 118-127.
- 35) 김정택·심혜숙·제석봉, op.cit., pp. 304-322.
- 36) Ibid., pp. 304-322.
- 37) 손희순·손희정(1998), 한국 20대 성인여성의  
체형연구, *복식문화연구*, 6, pp. 141-152.
- 38) 이정임(2001), "한국인 여성의 표준체형에 관한  
연구 -18-24세 여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박사학위논문. pp. 107-108.
- 39) 최인려·방혜경(2006), "20대 여성의 체형과 선  
호하는 디자인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4(3), pp. 381-386.
- 40) SIZE KOREA(편)(2005),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자료*. pp. 15-24.
- 41) 이인자·이경희·신효정, op.cit., pp. 133-136.

접수일(2009년 5월 1일)  
수정일(1차 : 2009년 5월 20일)  
게재확정일(2009년 5월 25일)